

박주선 “통합 없다...연대·협치 주저 안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출
당 결집·자강·혁신 등
위기 극복 리더십 주목
“국민 공감 얻어 지지 회복”
다음달 말 의원 워크숍



박주선 국회의원(앞 줄 가운데)이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연합뉴스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대 이상의 선전과 당 내외의 통합론 등으로 호남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국민의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자강의 동력 마련과 함께 제3당으로서 혁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내홍으로 번진 민주당,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다 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자강의 길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협치를 실현하는 데는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강의 원칙 아래 민주당 및 바른정당과의 연대 등을 통해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활로를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민의당이 집권에는 실패했으나 해야 될 소임과 역할이 막중하

다”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 “당이 하루 속히 비정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게 원칙상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1월 전대론’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당내 화합과 결속이 완전히 이뤄진 상태에서, 또 혁신의 기본적 사항이 마무리된 상태에서(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결집과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의 복잡한 역학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당의 결

집과 혁신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여서 박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한편 그는 대선 패배 후 잡행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국민적 지지 21%를 확보했던 분”이라며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과 역할을 해줄 분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는 “정권 출범 초기에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결집, 여당에 대해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데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면 지지율 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6월 말 대선 패배 후 어수선해진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당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의원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 7~8월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원외 지역위원장을 당내 여야정 국정협의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TF 등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당이 추천할 방송통신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6일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백원우(51·사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출생인 백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부비서를 지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경기시흥)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이어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3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의전비서관에 조한기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내정했다.
또 언론인 출신의 조용우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기획팀 선임팀장이 국경기록비



서관에, 신동호 전 민주당 선대위 메시징팀장이 연설비서관으로 각각 임명되고 있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에는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 대변인을 지낸 진성준 전 의원이 임명됐으며, 선대위에서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한병도 전 의원은 정부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소통수석실의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언론인 출신의 최우규 전 선대위 공보특보가, 해외언론비서관으로는 신지연 미국 변호사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해철 “3철’ 악의적 프레임 인정 못해”

SNS에 심경 밝혀...“이제 자유로워지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5일 “패권, 비선 측근, 3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좁은 틀에 가둬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하는 주장에 대해 이제는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양정철 전 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그룹인 이른바 ‘3철’로 불린다. 양 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은 새 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았고, 비선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출국했다.
전 의원은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잘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잘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의·계파주의·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의해 실현하고자 노력한 노무현 정신을 지지한다”면서 “이런 정신을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늘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꿈과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해야 할 역할을 해내고야 마는 제 2의, 제 3의 노무현을 통해 그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선거구제 개혁해 다당제 완성”

원내대책회의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20대 국회에서 기필코 선거구제도를 개혁해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완성시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역사가 국민의당에 부여한 책무이고, 국민의당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 이념 간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두 개의 정당이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며 “다당제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보완제”라고 말했다.
전날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관련해선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고백과 참회를 기다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정대철 “대선 3위 안철수 석고대죄해야”

“전대 출마 국민 지지 못받아...민주와 합당은 먼 얘기”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25일 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대선에서 떨어지고 3등까지 한 것은 국민한테 죄악”이라며 “석고대죄 후 총선 해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못하거나 하는 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도 바로 일어나면 국민적 지지를 더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말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국회 의원 된 지가 41년쯤 되는데 결론은 상식을 벗어나 자꾸 뭘 꾀하면 잘 되지 않는다”며 “상식의 정치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정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및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순조로운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당도 당원들이 뜻을 같이하면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통합은 한참 후의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정당, 청년 몫 최고위 신설

바른정당은 차기 지도부에 청년 몫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 9명 안에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의원들의 견이였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출된 청년층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대·결집해나간다는 의지가 풀이된다.
특히 새로 신설하는 청년 몫 최고위원은 대표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 또는 당원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변인은 “여성 몫 최고위원처럼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에 청년을 한 명 포함하거나 원외 당협위원장 중 1명을 당원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듯 당내 35세 이하 당원들이 뽑은 중앙청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최고위 구성은 현행 9인의 집단지도체제를 방식을 유지하고, 선출 방식에서도 당원·당규상의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책임당원의 경우 당원·당규에 ‘당비 납부 6개월’을 자격기준으로 정해졌지만 지난 1월 창당한 신생정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원대표자대회일(6월26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당원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무약 법무법인 지산]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 ▶인 원 : 선착순 10명
- ▶비 용 : 100,000원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